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이 부모님과 인사 하고 있다.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사진공동취재단 son@

세 번째 코로나 수능... 역대급 N수생 '정시 변수'

전국 84개 시험지구서 일제 시작
50.8만명 지원, 전년비 1791명 ↓
코로나 확진자 시험장 별도 운영
EBS 체감 연계율 50%로 높아

코로나19 상황 속 세 번째, 문·이과 통합 형태로는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치러졌다.

수능 출제본부에 따르면, 시험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65개 시험장(별도·병원시험장 제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시험으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400여명이 전국 110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과 25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지난해는 96명의 확진 수험생이 시험을 봤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128명이었다. 장애 등으로 시험편의를 제공받는 706명도 도전했다.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400명 도전**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8030명으로 전년보다 1791명 감소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5만239명(68.9%), 졸업생 등은 15만7791명(31.1%)이다. 수능 응시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1997학년도 수능(66.1%) 이후 최저, 이외 졸업생 등의 비율은 최고다.

이는 응시자 3명 중 약 1명은 N수생을 의미하며, 상위권이 많은 이들의 응시가 증가함에 따라 대입 정시모집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능 재도전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와 서울 소



서울 중구 통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이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재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년차인 통합형 체제에서도 선택과목 풀림이나, 유불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국어영역의 경우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풀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한 과목을 응시했다. 수험영역은 공통과목으로 수학 I·수학 II를 보고, 선택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했다.

수능 출제기관은 쉬운 과목에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실제 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수학 영역의 경우 이과 수험생이 다수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 선택 수험생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 주요대학 자연계열 정시에서 이들 과목 선택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거나 가산점을 부여해 상위권 이과 수험생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작년 '불수능'에 ... EBS 체감연계도 높아**

올해 수학 영역 응시 지원자는 총 48만1110명으로 이 중 21만199명(43.7%)이 '미적분'을, 3만242명(6.3%)이 '기하'를 택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4만669명(50%)이다. 지난해 시험보다 '미적분' 응시자는 증가한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감소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EBS 연계 방식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난이도 실패와 관련해 "올해 두 차례 실시한 모의평가를 통해 응시집단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EBS 연계 축소가 '불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했다"며 "(올해 수능 출제에서는) EBS 체감연계도를 올려 학생들이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EBS 체감 연계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EBS 연계가 동일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며 "지문이 담은 소재와 내용이 매우 유사해서 문항을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했다"고 부연했다.

평가원은 이날부터 21일 18시까지 수능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29일 17시 최종 정답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수능 성적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예년 출제기조 유지 노력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침



수험생들은 140개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목별 편차가 있다면 선택에 의해 유불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이 올해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면서도, 유불리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윤봉 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사진)은 이날 수능 1교시가 시작된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역별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 출제했다"면서도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것이 그나마 (유불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처럼 조정하지 않으면 쉬운 과목 선택자가 유리해지고, 응시생들이 쉬운 과목에 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문성(경인교대 교수) 검토위원장도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는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올해 6월과 9월 치른 두 차례 모의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에 대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고, 핵심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루졌어도 질문 형태와 문제 해결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을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출제했으며, 올해 평가원이 감수한 고3 대상 발간 교재와 강의 내용에서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과 원리, 지문, 자료, 핵심 제재, 논지를 활용, 문항 변형, 재구성 방식을 활용했다.

/세종=한용수 기자